

# 동신유압, 초대형 사출성형기 개발

사출용량 100kg의 <프로 디마II 3000t> ... 형체 지지대 탈·부착 가능

사출성형기 전문기업 동신유압(대표 김지)이 초대형 사출성형기를 개발했다.

동신유압은 초대형 사출성형기인 <프로 디마II 3000t>를 개발해 부산 사상구 학장동 본사에서 품평회를 가졌다.

<프로 디마II 3000t>는 국내 최초로 사출기 형체 지지대(타이바)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동시 사출용량이 100kg 정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앵겔, 일본의 도시바, 독일의 드막 등 세계 5대 사출성형기 제작기업의 기존 3000톤 성형 사출기의 용량은 70kg에 불과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바이어의 주문으로 2004년 하반기부터 연구에 돌입해 5개월여만에 개발한 <프로 디마II 3000t>는 당초 대형 정화조와 물탱크 덮개 제작용으로 설계됐으나 금형만 달리하면 다른 제품 사출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출기에 50kg 크기의 질소 가스통을 49개나 부착해 사출속도를 극대화했다.

동신유압은 1969년 인라인스크류 사출성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을 비롯해 4000톤 사출성형기, 1600톤 뮤셀 사출성형기 개발 등 국내 사출성형기 대형기종 개발을 선도해왔다.

<화학저널 2005/01/12>